

연극으로... 영화로... '5·18' 콘텐츠 풍성



5·18 민중항쟁을 소재로 한 작품들이 꾸준히 제작되고 있다. 4년째 서울에서 공연중인 '짬뽕'과 7월 개봉을 앞두고 있는 영화 '화려한 휴가'.

되살아나는 '오월 광주'

'5월 광주'를 소재로 한 예술 작품들이 꾸준히 선보이고 있다.

5·18을 소시민의 시각에서 바라본 따뜻한 연극 '짬뽕'은 서울 대학로에서 꾸준히 무대에 올리고 있으며 '화려한 휴가' 등 5·18을 소재로 한 영화들도 속속 만들어지고 있다.

▲'짬뽕' 때문에 5·18이 일어났다?-연극 '짬뽕' 서울 대학로 소극장에서 공연중인 '짬뽕'은 짬뽕 한 그릇이 300원이던 시절을 배경으로 왜 싸워야 하는지 이유도 모르고 싸워야 했던 가족·이웃들의 이야기를 잔잔하게 그린 작품이다.

지난 2004년 5월에 첫 공연을 가진 '짬뽕'은 4년째 관객을 만나고 있으며 올해 공연을 본 관객은 4천여명에 이른다.

작품의 배경은 1980년의 한 중국집. 주인공 신자로는 갖은 고생 끝에 중국집 '춘래원'을 차린다.

1980년 5월 17일 늦은 밤, 배달을 나간 배달원 민식은 국가의 '중대한 임무'를 수행중이라는 군인들로부터 짬뽕을 공짜로 달라는 요구를 받지만 이를 거절한다. 양측의 실랑이는 '국군이 폭도들의 공격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변질돼 TV전파를 타고 상황은 점차 악화된다.

연극 '짬뽕' 서울서 꾸준히 상연

만화 '26년' '순지' 영화 제작도

연극을 관람한 홍성민(27·서울시 서초구 잠원동)씨는 "시민들이 이념이 있어서 거리로 나왔던 게 아니라 주인공 '신자로'처럼 행복을 지키기 위해 나왔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연출가 윤정환(36)씨는 "2002년 5월 월드컵 때문에 뉴스에서 조차도 5·18을 작게 다뤘던 게 안타까워 연극 '짬뽕'을 기획했다"며 "당시 상황을 모르는 후배들에게 5·18을 편안하게 감상할 수 있게 하고, 한번 더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길 바라는 마음에 가벼운 설정으로 작품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영화로 만나는 5·18

5월 광주는 영화로도 속속 제작되고 있다. 100여원의 제작비가 투입된 대작 '화려한 휴가'는 오는 7월 개봉예정이다.

제작사 기획사대는 18일 오후 2시 광주CGV 상무에서 김지훈 감독과 김성경·이요원·안성기 등

주연배우들이 참여한 가운데 제작보고회를 갖는다. 이날 행사에서는 메이킹 필름과 영화 하이라이트가 상영되며 오후 4시에는 참단지구 '화려한 세트' 야외세트장에서 배우 짜인회도 개최한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www.daum.net)에 연재됐던 강풀의 원작 만화 '26년'은 '괴물' 제작사인 참여담에서 영화화한다.

'천하장사 마돈나'의 이해영 감독이 연출을 맡은 '26년'은 5·18 유족들이 전두환 전 대통령을 암살하려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작품으로 연재 당시 많은 화제와 논란을 낳았다.

문화중심도시조성추진기획단 등이 지원한 문화콘텐츠 특성화 브랜드 발굴 지원사업에 선정된 (주)씨네웍스는 내년 5월 개봉을 목표로 독립장편영화 '순지'를 제작중이다.

영화 '순지'는 5·18 민중항쟁 27주년 준비위원회가 80년 5월을 재현하는 집체극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세 남자의 사랑과 아픔을 담았다.

5·18기념재단과 연계해 5·18 관련 영화를 제작기로 한 영화사 싸이더스 FNH도 2010년 개봉을 목표로 시나리오 작업에 들어갔다.

/이문미기자 emlee@kwangju.co.kr

5·18 광주민주화운동 증언집 '꽃만 봐도...' 출간

5·18 광주민주화운동 27주년을 맞아 당시 사망자와 행방불명자들의 상황을 유족과 지인들의 입을 통해 정리한 증언집이 나왔다.

5·18기념재단이 최근 출간한 '꽃만 봐도 서럽고 그리운 날들'(전 2권)은 5·18 민주화운동 이후 사망한 44명과 행방불명된 56명에 대한 유족들의 기억을 담은 것이다.

책에는 초등학교를 그만두고 아버지 병 간호를 하던 중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은 고재덕군,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16살의 나이로 금남로에서 구두를 닦던 중 영문도 모른 채 계엄군의 총에 맞아 숨지고 시신까지 감쪽같이 사라져 버린 김재용군 등의 이야기가 실렸다.

5·18민주유공자유족회의 정수만 회장은 "증언집에 수록된 사망자와 행방불명자가 겪어야 했던 고통과 그 가족이 풀고 살아온 희한의 세월을 통해 애 아치고 5·18은 끝나지 않았으며, 역사로부터 받은 가해의 상처와 후유증을 우리 사회가 함께 보듬어야 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일미디어·각 1만5천원>
/인현주기자 ahj@kwangju.co.kr

광주문진위, 문화바우처 사업

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회(위원장 조동수)는 2007년 문화바우처 사업을 실시한다.

지난해 사업평가결과 1위를 차지한 광주문진위는 올해 사업비로 1천 700만원을 추가 지원받아 모두 8천 800만원의 기금을 확보했다.

문화 바우처는 문화활동에 제약이 받고 있는 저소득층(장애인, 아동 등)에게 공연, 전시 등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지난해보다 2만명이 늘어 1인당 5만원까지 지원된다. 지원율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나는예술여행(www.art-stour.or.kr) 홈페이지에서 회원등록을 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 광주에서는 약 6천여명이 문화바우처를 이용했다. 문의 062-381-2234~5.

"단편 고집 버리고 이제 장편 도전"

광주일보 신춘문에 출신 소설가 채희운(53·광주여대 심리학과 교수)씨가 '스무고개 넘기'(문학사 지상사·1999년) 이후 8년 만에 네 번째 소설집 '곰보 아재'(민음사)를 출간했다.

미발표작 1편을 포함해 단편 6개와 중편 1개 등 모두 7편이 실려 있다.

"이제 장편소설도 쓰고, 후배 작가들과의 진지한 공부를 통해 더 활발한 작품 활동을 하겠다"는 채희운을 지난 14일 광주시 광산구 산정동 광주여자대학교 여대관 302호 자신의 연구실에서 만났다.

채씨는 1984년 광주일보 신춘문에 희곡 부문으로 등단한 뒤 1989년 한국일보 신춘문에에서 소설로 재등단했다. 등단 이후 20년이 넘도록 채씨는 4권의 소설집만을 출간했을 정도로 단편소설을 고집하는 작가다. 게다가 글쓰기 속도는 1년에 단편 2~3편으로 더디다.

"의도적이었던 것은 아니지만, '단편소설=순수 문학'이 공식처럼 인정을 받지 못했기 현실이 작용했던 것 같아요. 써놓은 장편을 단행본으로 엮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죠."

광주일보 신춘문에 출신 작가 스터디 통해 작품 업그레이드



최근 2년 임기의 광주·전남민족문학작가회의 회장을 마친 채씨는 이제 후배들에게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장편 등 단행본 내는 일을 꺼리지 않겠다고 했다. 올해 말 채씨의 첫 장편소설이 나올 예정이다.

또 지역 작가들과 서로의 작품

을 스토리하려고 한다. 채씨는 "소설이란 독자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혼자 만족할 수 없는 것"이라며 "발표하기 전 작가들끼리 둘러보며 아픈 지적을 하면, 작품은 업그레이드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채씨는 비루한 삶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치열한 글쓰기 스타일로 풀어낸다.

표제작 '곰보 아재'의 아재는 어린 시절 앓은 마마로 곰보가 된 뒤 장물뱅이로 살다 '예쁜' 글을 고집해 결혼은 하지만,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다 자살한다. 원치 않은 임신한 '엄산'의 주인공은 엄마를 두들겨 패고는 의식처를 격렬한 성행위를 했던 '짐승같은' 아버지를 찾는다.

주인공들이 애써 잊으려 했던 존재, 아재와 아버지는 조그만 사건들(아재 딸의 등장과 임신)을 통해 주인공의 의식 속에 조용히 파리를 틔다. 평론가 김형중씨는 "이 소설은 어둠 속에 스스로 유쾌해 버렸던 기억들, 일상의 인연을 순식간에 파헤쳐 버릴지도 모를 일을 꺼리지 않겠다고 했다. 올해 말 채씨의 첫 장편소설이 나올 예정이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서양화가 허 정 개인전 23일까지 무등갤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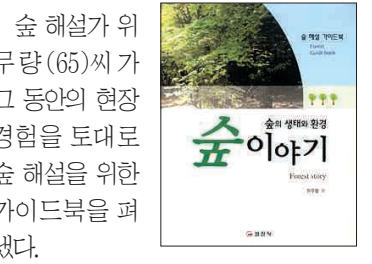


17일 광주 무등갤러리에서 개막한 서양화가 허정씨의 개인전에서 관람객들이 작품을 감상하고 있다. 전시는 오는 23일까지 열린다. 왼쪽부터 전임장 조선대 미대학장, 김진영 광주일보사장, 정경주 광주미술회장, 최병구 광주미술사무국장, 김재형 전 전남대 미대학장.

/위적량기자 jrwi@kwangju.co.kr

숲 해설 가이드북

위무량씨 '숲 이야기' 펴내



숲 해설가 위무량(65)씨가 그동안의 현장 경험을 토대로 숲 해설을 위한 가이드북을 펴냈다.

'숲 이야기'(일진사)에는 자연생태, 산림과 삼림, 수종의 효과, 야생조수, 병충해 등 10가지 주제가 문단식으로 정리돼 있어 초보 숲 해설가는 물론 일반인들도 알기 쉽게 풀이됐다.

부록으로 천연기념물 리스트와 계절별 야생화를 컬러 사진으로 실었다.

저자는 36년 간의 교직 생활을 마무리한 뒤 숲 해설가로 왕성하게 활동 중이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대인동삼일부동산' (Daedong Samil Real Estate) featuring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Motel, bathhouse, and various commercial buildings) and 'LCE타워(주) 첨단지구 LCE타워' (LCE Tower in 첨단지구).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일가공인중개사' (Ilga Gongin Real Estate) featuring '상가건물 매매' (Commercial building sale) and '전원주택' (Cottage).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한일지도판매(주)' (Hanil Jido Real Estate) featuring '2007 최신 광주지번도 책 판매개시!!' (2007 latest Gwangju land register book sale).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호성공인중개사' (Hoseong Gongin Real Estate) featuring '대지매매 (교회, 원, 부름부지)' (Land sale) and '물류창고, 공장부지' (Warehouse, factory site).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토우드공인중개사' (Touud Gongin Real Estate) featuring '토지' (Land) and '상가·건물' (Commercial building).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다우공인중개사' (Dau Gongin Real Estate) featuring '오봉리 전원주택지 (평당 30만)' (Obeongri country house site) and '장동동 일반주거지 (평당 60만)' (Jangdongdong general residential site).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금보부동산컨설팅' (Geombo Real Estate Consulting) featuring '싼땅매매' (Cheap land sale) and '건물매매' (Building sale).